

同化를 강요하지 않는 캐나다... 키워드는 '공존공생'

2부- 해외 다문화 현장을 가다

⑬ 정부-시민단체 지원 연계

밴쿠버=글·사진 이종행기자

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동화'가 아닌 '공존공생'이다. 개별 민족과 인종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정책을 펴는 것이다. 캐나다는 1971년부터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국가 공식 정책으로 채택, 각 민족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민자 언어교육(LINC)' 프로그램이나 '이민자 정착 및 적응(ISAP)' 프로그램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 또는 주(州)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여러 시민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광주일보의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언어 교육·영유아 프로그램·취업 지원서비스 등을 운영 중인 한 시민단체를 찾아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 등을 현장 취재했다.

개별 국가들의 문화적 특성 존중

시민단체와 교육·경제활동 지원

캐나다 밴쿠버(Vancouver) 트라이 시티(Tri-City)의 '석세스'(S.U.C.C.E.S.S) 사무실. 출입문에 'Job service'(취업 지원서비스)라고 적힌 6평(19.8㎡) 남짓한 강의실에서는 아랍인·한국인·중국인 등 6명의 20~30대 여성이 이력서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었다.



'석세스'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다.

듣고 있었다.



4개국어로 소개된 '석세스' 교육 프로그램 안내 책자

한 강사가 "경력란에는 최근 3년간 일한 이력만 기재하는 게 좋다"고 말하자, 수강생들은 고개를 끄덕인 뒤 이력을 기재했다. 한 수강생이 완성된 이력서를 강사에게 보여 주자, 강사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었다. 취업 지원서비스 강사는 수강생 국적에 따라 달라졌다.

영 강의실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3~4세 아이 6명은 한 여성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장난감 놀이에 한창이었다. 또 한쪽에서는 발레와 창작무용을 하는 아이들과 놀이기구를 이용해 장난감 자동차를 만드는 아이도 눈에 띄었다.

이곳에서는 부모가 강의를 듣는 동안 어린 자녀를 대신 맡아주고 있다. 계시관에는 한국어·중국어·아랍어·영어 등 4개국으로 소개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부착돼 있었다. 트라이 시티에는 중국인·한국인·아랍인들이 많이 사는데, 이를 배려해 소개 책자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석세스'에는 영유아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비롯한 취업지원 서비스, 언어교육 프로그램, 건강 도우미 등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을 위한 30여개의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몸이 불편하거나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방문 서비스도 이뤄진다.

대만계 애니 톱(Anny Leung·여·44) 석세스 팀장은 "캐나다에는 '석세스'와 같은 다문화 가정을 돕는 시민단체들이 많은데, 지역별 인구 특성에 따라 상담 교사와 강사, 자원봉사자 등의 이른바 '도우미'를 모집하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니 팀장은 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부모의 언어교육과 경제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는 가정이 튼튼해야 자녀를 잘 돌볼 수 있고, 나아가 캐나다 전체의 경쟁력



캐나다 밴쿠버의 '잉글리쉬 베이' 앞 공원에 있는 '행복의 군상'이라는 동상 앞에서 주민들이 작품의 포즈를 따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작품은 '다민족들이 캐나다에 모여 행복의 미소를 짓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을 높이는 일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효과도 높다.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방식도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석세스'와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한 뒤 이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다문화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을 땐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계 상담 교사 김은주(여·45)씨는 "캐나다에 정착한 다문화가정 가운데 한 세대라도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정부와 시민단체가 서로 연계해 이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캐나다는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국도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여기고 이들의 정착을 배려한 다문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 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됐습니다.

"국민 모두가 다문화 수용하는 마음 가져야"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 연아 마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문화 사회를 수용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올바른 다문화 정책의 방향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인 연아 마틴(Yonah Kim Martin·여·46·한국명 김연아)씨는 "캐나다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모든 이에게 '다름'을 인정하고 다문화 사회를 수용하는 자세를 길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아 마틴씨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전체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의식 또는 마음가짐"이라며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도 해외의 여러 나라의 다문화 정책을 '롤 모델' 삼아 한국에 맞는 다문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캐나다 밴쿠버(Vancouver)의 버나비(Burnaby) 시 한인 연합교회에서 만난 그녀와의 일문일답.

- ▲캐나다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캐나다는 문화 통합 정책을 쓰는 미국이나 영국 등과 달리 개별 국가들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정책을 편다. 캐나다가 다문화 정책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꼽히는 이유다.
- ▲캐나다의 대표적인 다문화 정책은?
-각 주(州)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대부분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민단체 또는

학교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밴쿠버의 경우 언어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문화 지원 정책으로는 신규 이민자 언어교육(LINC)과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ISAP), 자원봉사자가 호스트로서 신규 이민자의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호스트(HOST) 프로그램 등이 있다.

▲캐나다 다문화 교육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돕는 전담 교사가 학교마다 배치돼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사들이다. 이들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 일부 과목의 경우 학교별 인증 비율에 맞춰 만드는데, 각 나라의 언어·문화·역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다민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서로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공존공생할 수 있다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다양한 이민 정책을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한국도 다문화 사회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 한국의 다문화 사회는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 여성 위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감안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결국 공금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는지 선형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연아 마틴은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2년(당시 7세)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1987년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 한 뒤 지난해까지 22년간 무디 중학교·스카 크릭 중학교 등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2003년 한인 커뮤니티 '한·캐나다 협력기구'(C3)를 창설(2003년)했으며,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다문화 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월 스테판 허퍼 캐나다 연방총리로부터 연방 상원의원에 지명됐다.

최고의 병원!!
이 지면을 이용하실 병원 연락주세요!!
문의 전화 062)220-0528 / 010-4767-2676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그곳”
건강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병원!!!

의료광고 심의필 제070904 중-3205호

‘사과같은 얼굴, 피부미인의 지름길’
강·한·남·자·피·부·미·인

전립선·탈모 피부레이저

강남 **진료과목 피부과 비뇨기과 의원**
전문의 원장 한승호

동구 대인동 30.3번지 2층 -롯데백화점 주차장 주차무료
예약및상담 062) 233-6060

의료광고 심의필 제071129 중-4805호

당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모발이식·지방흡입

Before After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 6개월)

복부 허리 둔부 전층 지방흡입 시술 2년후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곳..
기습성형 모발이식·눈썹이식

삼선의원 상담문의 TEL. 062) 653-7656

대한외과학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0093 중-2005호

경막외 신경성형술!
이제 경막외에도 치료 받으십시오

비수술적 디스크 치료
서울 **휴신경외과**에 그 답이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고민하신다면 먼저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해보세요!!

디스크 치료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여 일상 생활로 빠르게 복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울휴신경외과 홈페이지 www.seoulhuh.co.kr에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하고 다양한 시술 사례 및 방향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일시술 당일퇴원가능

인원 **한민병원** 가나리 병원 신경외과 과장 역임
가톨릭대 신경외과 레지던트 수료
전 연세 외과대학 신경외과 외래교수
가톨릭대 외과 신경외과 외래교수

www.seoulhuh.co.kr
예약 문의 인터넷: www.seoulhuh.co.kr
전화 예약: 062)374-5555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차장동 1178-1번지 차장역점 3층 (상업적 4층) 휴신(휴신)빌딩
주사원: 최영준 원장 주사원

진료/시간
평·일: 09:00-18:00
월·화: 09:00-18:00
수·목: 09:00-18:00
금·토: 휴진

의료광고 심의필 제080130 중-2696호

알레르기성 비염 코피·축농증

50년 전통! 대를 이은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대한생명 옆 한미쇼핑 맞은편
TEL : 062) 227-7575, 223-8300, 222-9487